

蘇軾 詩의 《莊子》 인용과 그에 따른 審美效果

류 소 진*

〈目次〉

- | | |
|--------------------------------|---------------------------------------|
| I. 서론 | III. 《莊子》 언어의 활용과 그에 따른 함축성 및 해학미의 제고 |
| II. 《莊子》 사상의 수용과 그에 따른 詩風의 曠達化 | IV. 결론 |

I. 서론

蘇軾(1036~1101, 字 子瞻, 號 東坡)은 詩文을 지을 때 典故를 즐겨 사용했고 또한 매우 정교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후대의 비평가들에게, “東坡는 전고를 가장 잘 사용하여 의미가 분명하고 읽기 쉬울 뿐만 아니라 적절하기도 했다(東坡最善用事, 既顯而易讀, 又切當)”¹⁾, “동파는 다른 책 속의 말을 구사하여 자신의 의론 전개에 이용하기를 구멍을 뚫어 놓고 키질 하듯 했는데 판에 박은 것처럼 사용한 것이 하나도 없다(東坡則驅使書卷入議論中, 穿穴翻篋, 無一板用者)”²⁾, “문자로 시를 짓고 才學으로 시를 지었다(《滄浪詩話》)고 평가되는 宋代 시인들은 전고의 사용이 광범위하고, 소재의 채취가 폭넓으며, 수법이 다양하여 前人들을 훨씬 능가했는데,

* 우송대학교 Endicott 자유전공학부 초빙교수

1) 胡仔 纂集, 廖德明 校點, 《苕溪漁隱叢話》, 人民文學出版社, 1984, 257쪽.

2) 趙翼 著(송용준 역해), 《甌北詩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284쪽. 이 논문에 인용한 《甌北詩話》의 원문은 이 책을 저본으로 삼았으며, 번역문은 이를 많이 참고했음을 밝혀 둔다.

이 방면에 있어서 동파의 시가 가장 대표적이다[被稱爲‘以文字爲詩, 以才學爲詩’(《滄浪詩話》)의宋代詩人, 其用典範圍之廣、取材之博、手法之多樣, 更大大地超過了前人. 在這方面東坡詩具有代表性的]”³⁾ 등의 평가를 받았다. 심지어 清代의 詩論家 葉燮(1627~1703)은 《原詩》에서 “소식의 시는 삼라만상을 포괄하고 있어서 비속한 이야기나 소설이라도 쓰이지 못하는 게 없었다. 비유하자면 구리·쇠·납·주석 같은 것들이 일단 그의 손을 거치고 나면 모두 정련된 금이 되었다. 그러니 필부나 속인들이 어찌 그의 경계를 넘볼 수 있으리오! 그런데도 소식의 시는 한 줄도 보지 않고 공공연히 비난을 늘어놓는 것은 역시 가련한 일이다! 소식의 시는 항상 한 구절 속에 두세 가지의 전고를 사용했는데 이는 그의 박식함을 늘어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역량이 크기 때문에 들지 않은 것이 없었던 것이다(蘇詩包羅萬象, 鄙諺小說, 無不可用. 譬之銅鐵鉛錫, 一經其陶鑄, 皆成精金. 庸夫俗子, 安能窺其涯涘! 並有未見蘇詩一斑, 公然肆其譏彈, 亦可哀也! 蘇詩常一句中用兩事三事者, 非騁博也, 力大故無所不舉)”⁴⁾라 하며 소식 전고 사용의 광범위성과 정교성에 대하여 최상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소식이 시문의 창작에 전고를 즐겨 사용하고 또 이를 자연스럽게 잘 운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다양한 방면의 서적을 많이 읽었기 때문일 것이다.

소식은 평소 儒·佛·道 사상에 관련된 전적을 폭넓게 읽은 결과 三教思想에 두루 통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도 《莊子》에 대한 애호가 남달랐으니, 그의 동생 蘇轍(1039~1112)이 “公(소식)은 문장을 하늘에서 얻었다. 젊을 때 나와 함께 선친을 사사했는데, 처음에는 賈誼와 陸贄의 글이 고금의 치란을 논함에 있어서 공허한 말을 하지 않은 점을 좋아했다. 얼마 뒤에 《莊子》를 읽어 보고는 아아 하고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옛날에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가 있어도 입으로 표현해 내지 못했는

3) 劉乃昌, 《談東坡詩的用典》, 《東坡詩論叢》, 四川人民出版社, 1983, 121쪽.

4) 葉燮, 《原詩·外篇上·七》, 《原詩·一瓢詩話·說詩碎語》, 人民文學出版社, 1998, 51쪽.

데 이제 《莊子》를 보니 내 마음과 부합하는구나'라고 했다(公之於文, 得之於天. 少與轍皆師先君, 初好賈誼·陸贄書, 論古今治亂, 不爲空言. 旣而讀《莊子》, 喟然歎息曰: '吾昔有見於中, 口未能言, 今見《莊子》, 得吾心矣.')⁵⁾라고 한 것이 이를 방증해 준다. 또 소식은 임종하기 직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내가 살면서 악한 일을 한 것이 없으니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다. 아무쪼록 통곡하면서 자연의 변화를 슬퍼하지 말아라(吾生無惡, 死必不墜. 慎無哭泣以怛化)”⁶⁾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지난 뒤에 子來가 병이 나서 숨을 헐떡거리며 죽으려고 하자 그의 처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울었다. 子犁가 찾아가서 조문하며 ‘쉬! 저리 비키시오! 변화하는 것을 슬퍼하지 마시오’라고 했다(俄而子來有病, 喘喘然將死, 其妻子環而泣之. 子犁往問之, 曰: ‘叱! 避! 無怛化.’)”⁷⁾라고 한 《莊子·大宗師》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이처럼 소식은 임종의 순간에도 《莊子》를 떠올릴 정도로 《莊子》에 심취해 있었다.

소식이 이토록 《莊子》를 애호했다면 평소 전고를 즐겨 사용한 그가 시를 지을 때 《莊子》를 많이 인용했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清代 비평가 劉熙載(1813~1881)는 《藝概·詩概》에서 이 점을 지적하여 “시는 《離騷》에서 나온 것을 정격으로 치고 《莊子》에서 나온 것을 변격으로 치는데 소릉(杜甫)은 순전히 《離騷》에서 나왔고 태백(李白)은 《莊子》와 《離騷》의 사이에 있으며, 동파는 십중팔구가 《莊子》에서 나왔다(詩以出於《騷》者爲正, 以出於《莊》者爲變. 少陵純乎《騷》, 太白在《莊》·《騷》間, 東坡則出於《莊》者十之八九)”⁸⁾라고 했다. 그리고 張三夕의 통계에 의하면, 王十朋의 《集注分類東坡先生詩》에 수록된 2,024수의 시에서

5) 蘇轍, 《欒城後集》卷22 〈亡兄子瞻端明墓誌銘〉(蘇轍 著, 曾棗莊·馬德富 校點, 《欒城集》, 上海古籍出版社, 1987, 1421쪽).

6) 蘇轍, 《欒城後集》卷22 〈亡兄子瞻端明墓誌銘〉(같은 책, 1421쪽)에 인용된 소식의 말이다.

7) 郭慶藩 撰, 王孝魚 點校, 《莊子集釋》, 中華書局, 2007, 261쪽. 이 논문에서 인용한 《莊子》 원문은 모두 이 책을 저본으로 삼았다.

8) 劉熙載, 《藝概》, 上海古籍出版社, 1978, 67쪽.

《莊子》를 인용한 예가 400여 차례이고, 邵長蘅 刪補本 《施注蘇詩》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 《莊子》 33편 가운데 〈胠篋〉 한 편을 제외한 32편이 골고루 인용되었다고 한다.⁹⁾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소식 시의 《莊子》 인용에 관한 연구가 이미 많이 이루어졌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필자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예상과 달리 소식 시의 《莊子》 인용에 관한 연구가 별로 없었다. 국내에서의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¹⁰⁾ 중국에서의 연구도 주로 소식의 詞와 散文에 집중되어 있어 소식 시의 《莊子》 인용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한 예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웠다.¹¹⁾

이에 필자는 소식이 시를 지을 때 《莊子》의 사상과 언어를 어떻게 수용하고 활용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소식 시의 審美效果에 어떠한 작용을

9) 張三夕의 〈論蘇詩中的空間感〉(《文學遺產》 1982年第2期, 95쪽)에 “《集注分類東坡先生詩》收詩2024首, 注引《莊子》400多次; 又《莊子》一書共33篇, 據清邵長蘅刪補本《施注蘇詩》幾乎每一篇都引過(僅〈胠篋〉一篇似未見注中標出)”라고 했다.

10) 국내에는 소식 시의 《莊子》 인용에 관한 연구는 한 편도 없었고, 소식의 유배 시기 시에 담긴 도가적 사유를 고찰한 논문을 한 편 찾을 수 있었다. 김희성의 〈蘇軾의 流配詩에 나타난 도가적 사유〉(《동북아문화연구》 제65집, 2020)라는 논문으로, 여기에는 ‘莊子の 우주적 사유를 통한 갈등의 해소와 달관’에 대한 개괄적인 서술이 있다. 그러나 이것도 소식 시의 《莊子》 인용에 관한 연구와는 성격이 다른 논문이다.

11) 중국에서의 연구 가운데 소식 시의 《莊子》 인용에 관한 논문으로 伍昆의 〈李白蘇軾詩歌化用《莊子》人物述論〉(華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5)이 있는데, 이 논문은 연구 범위를 소식 시의 《莊子》 인용 양상 전체가 아니라 《莊子》에 등장하는 인물 형상으로 국한했으며, 또 소식뿐 아니라 李白的 시도 함께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들이 시 속에서 《莊子》에 등장하는 인물을 어떻게 인용했는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 밖에 劉倩·崔妍의 〈《莊子》對蘇軾詩歌文學影響說〉(《安徽文學》 2009年第4期)은 소식 시에 미친 《莊子》의 영향을 압축하여 개괄적으로 소개했고, 趙彩芬의 〈論莊子對蘇軾謫居詩主體風格的促成〉(《雲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38卷第4期, 2006)은 소식의 유배 시기 시에 국한하여 그 영향 관계를 고찰했다. 다만 이 두 편은 모두 2-4쪽 분량의 아주 짧은 논문이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한 정밀한 분석보다는 특징적 면모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에 그쳤다.

했는지에 대하여 작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莊子》 사상의 수용과 그에 따른 詩風의 曠達化

시인이 어떤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여 시를 지을 경우 그 말이나 글에 담겨 있는 사상과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그 시에 반영될 것이다. 소식이 《莊子》를 인용하여 시를 지은 경우에도 《莊子》에 담긴 사상과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그의 시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逍遙遊는 莊子가 지향한 최고의 정신적 경지라고 할 수 있다. 逍遙遊란 일체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자재의 상태를 가리키는데, 莊子は 《莊子·逍遙遊》에서 진정한 자유, 즉 絶代自由의 경지를 두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한계의 초월이다. 그 핵심은 주관적인 자아의 경계를 초월하는 ‘無己’에 있다. 이를 통해 物我一體의 경지에 이르러 逍遙遊할 수 있다. 둘째, ‘쓸모없는 것(無用)’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의 ‘큰 쓸모(大用)’를 찾아서 逍遙遊하는 것이다.¹²⁾ 소식은 이러한 莊子의 逍遙思想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로 승화시켰다.

먼저 <다시 차운하여 내 시에 화답한 조경황과 진이상에게 감사하고 아울러 구양숙필 형제에게도 부친다(復次韻謝趙景貺·陳履常見和, 兼簡歐陽叔弼兄弟)>¹³⁾의 전반부를 보자.

能詩李長吉,	시를 잘 짓기로는 이장길 같고
識字揚子雲,	기이한 글자를 잘 알기로는 양자운과 같은데
端能望此府,	참으로 이 관아를 바라볼 수 있었기에
坐嘯獲兩君.	앉아서 휘파람 불며 두 사람을 얻었네.

12) 莊子 지음(김창환 옮김), 《莊子內篇》, 을유문화사, 2010, 13쪽 참조.

13) 《蘇軾詩集》 卷34(蘇軾 著, 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中華書局, 1987, 1790쪽). 이 논문에서 인용한 소식 시 원문은 모두 이 책을 저본으로 삼았다.

逝將江湖去,	맹세코 강호로 떠나가서
浮我五石樽.	나의 다섯 섬들이 腰舟를 띄우려고 하건만
眷焉復少留,	미적미적 또 이렇게 잠시 머물며
尚爲世所醺.	아직도 세상일에 취해 있네.

《莊子·逍遙遊》에 이런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

惠子が 莊子에게 “魏王이 나에게 커다란 박의 씨앗을 주기에 그것을 심었더니 자라나 다섯 섬들이 열매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물이나 음료를 담았더니 너무 물렁해서 들 수가 없고, 쪼개어서 바가지로 만들었더니 평평 짐하고 납작해서 담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덩그러니 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것을 쓸모없다고 여겨 부숴 버렸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莊子が “선생은 정말 큰 것을 쓰는 데 서툴군요. …… 지금 선생이 다섯 섬들이 박을 가지고 있다면 왜 그것을 커다란 腰舟로 삼아 강호를 떠다닐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이 평평짐하고 납작해서 담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걱정하십니까? 그러니 선생은 아직도 편협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했다.(惠子謂莊子曰: “魏王貽我大瓠之種, 我樹之, 成而實五石. 以盛水漿, 其堅不能自舉也; 剖之以爲瓢, 則瓠落無所容. 非不喟然大也, 吾爲其無用而措之.” 莊子曰: “夫子固拙於用大矣. …… 今子有五石之瓠, 何不慮以爲大樽而浮乎江湖, 而憂其瓠落無所容? 則夫子猶有蓬之心也夫.”)¹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섯 섬들이나 될 정도로 큰 박은 음료를 담아서 들고 다니기에 적합하지 않고 또 바가지로 만들어 쓰기도 어려워 마땅히 쓸 데가 없어 보인다. 惠子 역시 이런 생각으로 그것을 부숴 버린 것이다. 그런데 莊子は 그것이 惠子の 한계라고 생각했다. 莊子が 보기에 만물은 무엇이나 다 적재적소가 있어서 자기가 적합하게 쓰일 자리를 찾는다면 어디를 가든 逍遙遊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¹⁵⁾ 커다란 박

14) 郭慶藩 撰, 王孝魚 點校, 앞의 책, 36-37쪽.

15) 이 부분에 대한 郭象의 注(위의 책, 39쪽)에 “이 장은 만물은 각각 적재적소가 있으니 만약 제자리를 찾는다면 어디에 간들 逍遙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이다(此章言物各有宜, 苟得其宜, 安往而不逍遙也)”라고 했다.

은 물통이나 바가지로 쓰기에 불편한 대신, 그것을 허리에 차고 강을 건너면 부력을 많이 받아서 물에 빠질 염려가 없을 것이 아닌가! 세상 만물은 어느 것이나 다 쓸모가 있다. 단지 사람들이 그것의 쓸모를 찾아낼 줄 모르는 것일 뿐이다.

소식은 세상 만물이 다 쓸모가 있다는 莊子의 이 사고방식을 수용하여 이 시에서 “나의 다섯 섬들이 腰舟를 띄우려고 한다(浮我五石樽)”라고 했다. 이것은 자신이 관직을 버리고 강호로 돌아가서 다섯 섬들이나 되는 큰 박을 허리에 차고 강이나 호수를 건너다니며 자재로이 살고 싶다는 말이다. 여기에는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 깃들여져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신세를 한탄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한결음 더 나아가 남들이 쓸모없다고 버리는 다섯 섬들이 박을 유용하게 활용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산산의 소나무 숲속은 집터를 잡아 은거할 만한 곳이라 내가 그 땅을 세내려고 하는데 그 땅이 금산사에 속하므로 시를 지어서 금산사의 원장로에게 드린다(蒜山松林中可卜居, 余欲僦其地, 地屬金山, 故作詩與金山元長老)〉¹⁶⁾의 전반부에도 역시 ‘五石樽’ 고사가 인용되어 있다.

魏王大瓠無人識	위왕의 큰 박을 아는 사람 없었나니
種成何翅實五石.	심어서 키우면 어찌 다섯 섬들이 박만 열리리?
不辭破作兩大樽,	그걸 쪼개 요주를 두 개 만들면
只憂水淺江湖窄.	물이 얇고 강호가 좁을까 봐 걱정이리.

소식은 黃州(지금의 호북성 黃岡市 黃州區)에서 汝州(지금의 하남성 臨汝)로 유배지를 옮겨 가는 도중 潤州(지금의 강소성 鎮江)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蒜山이 은거하기에 좋은 곳임을 알고 그 산의 소유주인 金山寺의 了元禪師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이 시를 지었다. 이 시의 첫 부분에서 그는 사람들이 쓸모를 찾지 못하는 다섯 섬들이 박에게 쓸모를 찾아주는 방

16) 《蘇軾詩集》 卷24(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앞의 책, 1277쪽).

식으로 그곳의 강호를 마음껏 돌아다니며 유유자적하는 은거 생활을 즐기고 싶은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다음으로 <10월 14일에 병으로 휴가를 얻어 혼자 술을 따른다(十月十四日以病在告獨酌)>¹⁷⁾의 후반부를 보자.

此生獨何幸,	이내 삶에 유독 무슨 행운이 있었는지
風纜欣初泊.	바람 속에 닻줄 매어 막 정박하게 되니 기쁘네.
誓逃顏跼網,	맹세코 顔回와 盜跖의 그물에서 벗어나
行赴松喬約.	赤松子나 王子喬와의 약속을 지키리.
莫嫌風有待,	바람에 의지한다고 싫어하지 말지니
漫欲戲寥廓.	넓디넓은 하늘에서 마음껏 놀고 싶네.
泠然心境空,	산뜻하게 마음이 텅 비었으니
彷彿來笙鶴.	신선의 학이 나를 태우러 올 것 같네.

“바람에 의지한다고 싫어하지 말지니, 넓디넓은 하늘에서 마음껏 놀고 싶네(莫嫌風有待, 漫欲戲寥廓)”는 다음과 같은 《莊子·逍遙遊》에 근거를 둔 것이다.

저 列子는 바람을 부리며 타고 다녀 상쾌하고 멋있었는데 15일이 지난 뒤에야 돌아오곤 했다. 그는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는 일에는 급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비록 걸어 다니는 것은 면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의지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하늘과 땅의 정기를 타고 여섯 가지 기운의 변화를 다스리면서 무궁의 경지에 노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또 어디에 의지하겠는가! 그러므로 말하하니 지인에게는 자기 자신을 의식함이 없고, 신인에게는 공로를 의식함이 없으며, 성인에게는 이름을 의식함이 없다.(夫列子御風而行, 泠然善也, 旬有五日而後反. 彼於致福者, 未數數然也. 此雖免乎行, 猶有所待者也. 若夫乘天地之正, 而御六氣之辯, 以遊無窮者, 彼且惡乎待哉! 故曰: 至人无己, 神人无功, 聖人无名.)¹⁸⁾

17) 《蘇軾詩集》 卷34(같은 책, 1807쪽).

18) 郭慶藩 撰, 王孝魚 點校, 앞의 책, 17쪽.

列子는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돌아다녔는데, 바람을 타고 다니는 것은 걸어 다니는 것에 비하면 매우 자유로운 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莊子가 보기에는 이 역시 바람이라는 수단에 의지하는 것이라 바람이 없으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니었다. 타지 못하는 것이 없어야만이 의지하는 것이 없는데,¹⁹⁾ 의지하는 것 없이 絶代自由의 경지에서 노니는 것이 莊子가 말한 진정한 逍遙遊였다.²⁰⁾ 말하자면 莊子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공로를 의식하지 않고, 이름을 의식하지 않아야 진정한 逍遙遊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列子처럼 바람을 타고 다니는 것만 해도 매우 높은 수준의 逍遙遊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식은 그 정도만으로도 자유로이 왕래하며 유유자적할 만하다고 여기고 그러한 삶을 추구했다. 그리고 그것을 시로 읊었다.

그렇다고 소식이 바람을 타고 다니는 수준에서 머문 것은 결코 아니었다. <장안도의 낙전당(張安道樂全堂)>²¹⁾을 보자.

列子御風殊不惡, 猶被莊生譏數數. 步兵飲酒中散琴, 於此得全非至樂. 樂全居士全於天, 維摩丈室空惘然. 平生痛飲今不飲,	列子가 바람을 타고 다닌 건 참으로 괜찮은 일이었던만 그래도 莊子에게 급급했다고 비난받았나니 步兵校尉는 술 마시고 中散大夫는 거문고 탔지만 이렇게 天真을 보전하는 건 지극한 즐거움이 아니라네. 樂全居士는 천진을 잘 보전하셔서 維摩居士의 좁은 방이 텅텅 비어 횡한 격이라 평생토록 흠뻑 마시다 지금은 안 마시고
--	--

19) 郭象의 注(위의 책, 20쪽)에 “바람이 아니면 다닐 수 없다면 반드시 의지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타지 않는 것이 없는 사람만이 의지하는 것이 없다(非風則不得行, 斯必有待也, 唯無所不乘者無待耳)”라고 했다.

20) 王先謙의 注(《莊子集解》, 上海書店, 1987, 3쪽)에 “의지하는 데 없이 무궁의 경지에서 노니는 것이야말로 <逍遙遊篇>의 핵심 요지이다(無所待而遊於無窮方是<逍遙遊>一篇綱要)”라고 했고, 曹礎基의 《莊子淺注》(中華書局, 2007, 6쪽)에 “無窮, 指無限的時間與空間, 即絶代自由的境界”라고 했다.

21) 《蘇軾詩集》 卷13(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앞의 책, 641쪽).

無琴不獨琴無弦。	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거문고도 없다네.
我公天與英雄表，	선생께는 하늘이 영웅의 자태를 내려
龍章鳳姿照魚鳥。	용과 봉황의 자태가 물고기와 새를 비추나니
但令端委坐廟堂。	예복을 차려입고 조정에 앉게 해 드리면
北狄西戎談笑了。	담소하는 사이에 오랑캐가 모두 사라졌네.
如今老去苦思歸，	이제는 늘그막에 고향 생각 간절해져
小字親書寄我詩。	작은 글씨로 손수 써서 시를 보내 주셨네.
試問樂全全底事，	보전하는 걸 즐긴다는데 무슨 일을 보전하는 걸까?
無全何處更相虧。	보전할 것 자체가 없다면 더 이상 어디를 훼손할까?

소식이 “列子가 바람을 타고 다닌 건 참으로 괜찮은 일이었건만, 그래도 莊子에게 급급했다고 비난받았다(列子御風殊不惡，猶被莊生譏數數)”라고 한 것은 바람을 타고 다니는 것도 결국 무언가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絶代自由의 경지가 아니라는 莊子의 생각에 동의한 것이다. 步兵校尉를 역임한 阮籍이 술에 의지하여 天真을 保全한 것이나 中散大夫를 역임한 嵇康이 거문고를 탐으로써 천진을 보전한 것은 至樂이 아니라고 한 것은 그 때문이다. 소식은 張安道(張方平)야말로 천진을 잘 보전한 사람이라고 칭송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전할 것 자체가 없는 상태가 진정으로 온전한 경지라고 했다. 이는 바로 莊子가 말한 “지인에게는 자기 자신을 의식함이 없고, 신인에게는 공로를 의식함이 없으며, 성인에게는 이름을 의식함이 없는(至人無己，神人無功，聖人無名)” 경지라고 하겠다.

齊物思想 역시 莊子의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이다. 莊子는 이 세상의 대립 관계에 있는 雙方이 모두 渾然一體로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齊物思想에 근거하여 큰 것과 작은 것, 귀한 것과 천한 것, 영예로운 것과 치욕스러운 것,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장수하는 것과 요절하는 것 등을 모두 동일시했으며 심지어 사는 것과 죽는 것까지도 서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²²⁾ 소식 역시 莊子의 이런 사상을 받아들였고 또 그것을 시

22) 莊子의 齊物思想에 대하여 陸永品은 《莊子通釋》(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로 노래했다. 소식이 濠州(지금의 안휘성 鳳陽縣 일대)를 지나갈 때 그곳의 莊子 관련 유적지인 逍遙臺에 올라가서 본 감회를 노래한 시 〈소요대(逍遙臺)〉²³⁾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常怪劉伶死便埋,	죽으면 바로 거기에 묻으라 한 유령을 늘 괴이해했나니
豈伊忘死未忘骸.	어째서 그는 죽음은 잊으면서 몸뚱이는 잊지 못했나?
烏鳶奪得與螻蟻,	까마귀 솔개에게 빼앗아 땅강아지 개미에게 주려는 마음
誰信先生無此懷.	누가 선생에게 이러한 마음이 없었다고 믿으리?

竹林七賢의 한 사람으로 술을 엄청나게 좋아했던 西晉 사람 劉伶은 외출할 때 항상 수레에 술을 싣고 다니며 자기가 죽거든 집까지 끌고 올 필요 없이 그 자리에 바로 묻어 버리라면서 하인으로 하여금 삽을 들고 다니게 했다.²⁴⁾ 이리하여 그는 매우 달관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사실 사람이 이 정도로 달관한 경지에 이르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소식은 劉伶의 이러한 태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유백륜(劉伶)은 늘 삽을 지니고 다니면서 “내가 죽으면 바로 그 자리에 묻어 버리게”라고 했다. 나 蘇子は 말한다. “유백륜은 달관한 사람이 아니다. 관·옷·이불과 같은 것은 달관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죽으면 그만이지 무엇하러 더 이상 묻을 필요가 있겠는가?”(劉伯倫常以鍤自隨, 曰: “死即埋我.” 蘇子曰: “伯倫非達者也. 棺槨衣衾, 不害爲達. 苟爲不然, 死則已矣, 何必更埋?”)²⁵⁾

16쪽)에서 “莊子認爲, 世上矛盾對立的雙方, 諸如生與死, 貴與賤, 榮與辱, 成與毀, 大與小, 壽與夭, 然與不然, 可與不可等, 都是‘齊一’而無差別的”라고 해석했다.

23) 《蘇軾詩集》 卷6(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앞의 책, 284쪽).

24) 《晉書》 卷49 〈劉伶傳〉(許嘉璐 主編, 《二十四史全譯·晉書》, 世紀出版集團·漢語大詞典出版社, 2004, 1122쪽) 참조.

25) 蘇軾 撰, 趙學智 校注, 《東坡志林》, 三秦出版社, 2004, 240쪽.

소식은 죽으면 집까지 끌고 갈 것 없이 바로 그 자리에 묻어 버리면 된다는 劉伶의 달관은 별로 철저하지 않다고 여긴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보다 훨씬 더 달관한 莊子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莊子·列禦寇》에 이런 말이 있다.

莊子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제자들이 그를 후하게 장사 지내려고 했다. 그러자 莊子が “나는 하늘과 땅을 관으로 여기고 해와 달을 옥 장식으로 여기고 별을 진주 장식으로 여기고 만물을 부장품으로 여긴다. 그러니 나의 장례 도구가 어찌 다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겠느냐? 여기에 무엇을 더 보태겠느냐?”라고 했다. 제자들이 “저희는 까마귀와 솔개가 선생님을 먹어 치울까 두렵습니다”라고 하자 莊子が “땅 위에 있으면 까마귀와 솔개의 밥이 될 것이고 땅 밑에 있으면 땅강아지와 개미의 밥이 될 것인데 저 것들에게 빼앗아서 이것들에게 준다니 어찌 그리 편파적이나?”라고 했다. (莊子將死, 弟子欲厚葬之, 莊子曰: “吾以天地爲棺槨, 以日月爲連璧, 星辰爲珠璣, 萬物爲齋送, 吾葬具豈不備邪? 何以加此?” 弟子曰: “吾恐烏鳶之食夫子也.” 莊子曰: “在上爲烏鳶食, 在下爲螻蟻食, 奪彼與此, 何其偏也?”)²⁶⁾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신이 죽으면 아무테나 묻어도 상관없다고 한 劉伶의 사고방식은 매우 달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자신이 죽으면 아예 묻을 필요조차 없다고 한 莊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달관한 사고방식이었던 것이다. 소식은 바로 이러한 莊子の 관점에서, 비록 자기가 죽은 바로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묻기는 묻으라고 했던 劉伶의 사고방식이 완전한 달관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 여긴 것이다. 이것은 바로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다르지 않듯 죽은 뒤에 시체를 땅 속에 묻는 것과 묻지 않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莊子の 齊物思想을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소식의 시에는 이 밖에도 《莊子》의 철학 사상을 노래한 예가 많다. 다음은 〈이대경을 애도하는 시와 그 서문(弔李臺卿并敘)〉²⁷⁾의 전반부이다.

26) 郭慶藩 撰, 王孝魚 點校, 앞의 책, 1063쪽.

我初未識君,	처음 내가 그대를 몰랐을 때
人以君爲笑.	사람들은 그대를 우습다고 여겼네.
垂頭老鶴雀,	머리 숙인 늙은 황새 모양인데
烟雨霾七竅.	안개비가 얼굴의 구멍 일곱 개를 가렸었네.
敝衣來過我,	다 해진 옷차림으로 내게 와서는
危坐若持釣.	莊子가 낚싯대를 잡고 있듯 반듯이 앉아 있었네.
褚裒半面新,	褚裒에게도 반쪽 얼굴로는 낯설었지만
巖蔑一語妙.	巖蔑처럼 말 한마디가 절묘하였네.

이 시 중의 “莊子가 낚싯대를 잡고 있듯 반듯이 앉아 있었네(危坐若持釣)”에는 《莊子·秋水》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莊子가 濮水에서 낚시하고 있을 때 초왕이 대부 두 사람을 보내 먼저 “나랏일로 누를 끼치고자 합니다”라고 말하게 했다. 莊子는 낚싯대를 잡은 채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내가 듣기로 초나라에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있었는데 죽은 지 이미 3천 년이 지났지만 임금이 아직도 천으로 싸서 상자에 넣은 다음 종묘에 잘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 거북이는 죽어서 뼈를 남겨 귀하게 되는 것이 낫겠소? 아니면 살아서 진흙 속에 꼬리를 끌고 다니는 것이 낫겠소?”(莊子釣於濮水, 楚王使大夫二人往先焉, 曰: “願以境內累矣.” 莊子持竿不顧, 曰: “吾聞楚有神龜, 死已三千歲矣, 王以巾笥而藏之廟堂之上. 此龜者, 寧其死爲留骨而貴乎? 寧其生而曳尾於塗中乎?”)²⁸⁾

莊子는 초나라 임금이 사자를 통해 그에게 재상직²⁹⁾을 맡기고 싶다는 생각을 전했을 때 비록 생활이 호사스러울지라도 벼슬에 매여 죽은 것이나 다름없게 지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생활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좋다는 인생철학을 피력했다. 그리고 소식은 莊子의 이 초탈한 인생철학을 수용하고 이를 인용하여 李臺卿을 애도하는 자신의 시어

27) 《蘇軾詩集》 卷21(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앞의 책, 1131쪽).

28) 郭慶藩 撰, 王孝魚 點校, 앞의 책, 603-604쪽.

29) 簡光明, 〈蘇軾《莊子祠堂記》“楚公子微服出亡”寓言試解〉, 《諸子學刊》 第二輯, 上海古籍出版社, 2009, 236쪽 참조.

로 삼음으로써 이대경의 인품을 칭송한 것이다.

〈비에 대한 감회를 노래한 법조 모방의 시에 차운한다(次韻毛滂法曹感雨)〉³⁰⁾에도 《莊子》에서 비롯된 소식의 仕宦觀이 드러나 있다.

(전략)

捨酒尚可樂, 술 말고도 여전히 즐길 만한 건
明珠如彈丸, 탄알처럼 동글동글한 아름다운 구슬이네.
但恐千仞雀, 그저 한 가지 걱정은 천 길 위의 참새에게
恩恩發虛彈, 성급하게 헛 탄알을 쏘는 것이네.

(후략)

이 시는 毛滂의 능력을 극구 칭송하면서 언젠가 그 능력을 발휘할 때가 올 것이니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수양에 힘쓰면서 초연하게 기다리라고 충고한 것인데, 이 시에서 소식은 《莊子·讓王》의 고사를 인용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隨侯之珠로 천 길 높이에 있는 참새를 쏜다면 세상 사람들이 분명 이를 비웃을 것이다. 이는 어째서인가? 그것은 바로 그가 참새를 잡는 데 사용하는 것은 귀중한 것이고 그가 잡으려는 참새는 하찮은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귀중함이 어찌 수후지주 정도에 그치겠는가!(今且有人於此, 以隨侯之珠彈千仞之雀, 世必笑之, 是何也? 則其所用者重而所要者輕也, 夫生者, 豈特隨侯珠之重哉!)³¹⁾

귀중한 수후지주를 탄알로 삼아 참새를 잡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을 정도로 어리석은 일이다. 관직에 나아갔다가는 자칫하면 생명을 잃기 쉬운데 관직이라는 하찮은 것을 얻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수후지주를 탄알로 삼아 참새를 잡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莊子의 관점이었다. 그리고 소식은 《莊子》의 이 仕宦觀을 수용하여 자신의 시

30) 《蘇軾詩集》 卷32(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앞의 책, 1652쪽).

31) 郭慶藩 撰, 王孝魚 點校, 앞의 책, 972쪽.

에 반영했다.

소식은 그의 절친한 친구 王鞏이 烏臺詩案에 연루되어 賓州(지금의 광서장족자치구 賓陽)로 유배 갔다가 사면되어 돌아왔을 때 그의 유배 생활을 상상하여 <왕정국이 남쪽으로 유배 갔다가 돌아와서 나에게 부친 시에 차운한다(次韻王定國南遷回見寄)>³²⁾라는 시를 지었는데 여기에는 《莊子》의 철학 사상을 반영한 시어가 두 번이나 사용되었다.

土暈銅花蝕秋水,
要須悍石相礪砥。
十年冰蘖戰膏粱,
萬里煙波濯紈綺。
歸來詩思轉清激,
百丈空潭數魴鯉。
逝將桂浦擷蘭蓀,
不記槐堂收劍履。
却思庾嶺今何在,
更說彭城眞夢耳。
君知先竭是甘井,
我願得全如苦李。
妄心不復九迴腸,
至道終當三洗髓。
廣陵陽羨何足較,
只有無何眞我里。
樂全老子今禪伯,
掣電機鋒不容擬。
心通豈復問云何,
印可聊須答如是。
相逢爲我話留滯,
桃花春漲孤舟起。

흙도 묻고 녹도 슬어 가을 물 같은 칼이 삭았을 테니
숫돌에 날카롭게 갈아야만 되겠네.
십 년을 얼음과 황벽 먹으며 쌀밥에 고깃국과 싸우고
만 리의 안개 자욱한 물결에서 비단옷 벗어 씻었겠네.
돌아온 후에 詩想이 한층 더 맑아져
천 자자리 텅 빈 못에서 방어와 잉어도 셀 수 있겠네.
桂江 물가에서 난초와 창포나 캐러 했을 뿐
三槐堂도 칼 찬 채 신 신고 입궁하던 영예도 다 잃었네.
大庾嶺은 지금 어디에 있나 되려 그리워도 해 보고
彭城의 일은 정말 꿈이었을 뿐이라고도 말했네.
그대는 맛있는 우물이 먼저 고갈되는 줄 알고
나는 짝새래한 자두처럼 온전해지기를 바라네.
너는 망령된 마음으로 창자 아홉 번 뒤틀지 않고
지극한 도리로 결국에는 골수를 세 번 씻어야 하리.
廣陵이든 陽羨이든 어찌 따질 게 있으리?
아무것도 없는 곳만이 진정한 나의 고향이리.
樂全 노인께서는 이제 참선의 대가시라
번쩍거리는 번개와 날카로운 화살이 견줄 이가 없으리.
마음으로 통하는데 무엇하러 다시 왜냐고 물으리?
그래야지 하고 인정하며 그러겠노라고 대답하리.
만나면 나 대신 내가 여기 머물게 되었다 말해 주게
복사꽃 피고 봄 강물 불어나면 외로운 배가 뜨리.

32) 《蘇軾詩集》 卷24(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앞의 책, 1292쪽).

이 시 중의 “그대는 맛있는 우물이 먼저 고갈되는 줄 알고, 나는 씹새래한 자두처럼 온전해지기를 바라네(君知先竭是甘井, 我願得全如苦李)”는 “곧게 자란 나무가 먼저 베어지고, 맛 좋은 우물의 물이 먼저 없어진다(直木先伐, 甘井先竭)”³³⁾는 《莊子·山水》의 철학 사상을 수용한 것이다.

그리고 “廣陵이든 陽羨이든 어찌 따질 게 있으리? 아무것도 없는 곳만이 진정한 나의 고향이리(廣陵陽羨何足較, 只有無何真我里)”는 “지금 그대는 커다란 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쓸모없다고 걱정합니다만, 어찌서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고향의 넓은 들판에 심어 놓고 하는 일 없이 그 근처를 배회하거나 그 아래에서 누워 자면서 소요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그 나무는 도끼에 베여 일찍 죽지도 않고 그것을 해치는 것도 없을 것이오. 쓸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어디에서 곤욕을 당하겠소?(今子有大樹, 患其无用, 何不樹之於无何有之鄉, 廣莫之野, 彷徨乎无爲其側, 逍遙乎寢臥其下? 不夭斤斧, 物无害者. 无所可用, 安所困苦哉?)”³⁴⁾라고 한 《莊子·逍遙遊》의 철학 사상을 수용하여 자신이 廣陵(지금의 강소성 揚州)에서 은거하던 陽羨(지금의 강소성 宜興)에서 은거하던 아무래도 상관없고 오직 아무것도 없는 곳에 큰 나무를 심어 그 나무에게 쓸모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곳에서 자유롭게 逍遙遊하고 싶은 심경을 토로한 것이다.

이 시가 지어진 元豐 7년(1084) 12월에 소식은 黃州에서 汝州로 유배지를 옮겨 가는 도중 常州 宜興縣에 척박한 땅이나마 은거지를 마련해 놓고 조정에 常州 居住를 윤허해 달라는 상소문을 올려 놓은 상태였는데,³⁵⁾ 이때 친구 王鞏이 자기가 있는 揚州로 와서 은거하라고 했지만 이미 宜興에서 은거하기로 결정한 뒤라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³⁶⁾ 《莊子》의 哲理

33) 郭慶藩 撰, 王孝魚 點校, 앞의 책, 680쪽.

34) 같은 책, 40쪽.

35) 蘇軾의 〈乞常州居住表〉(蘇軾 著, 孔凡禮 點校, 《蘇軾文集》, 中華書局, 1990, 657쪽)에 “臣은 상주 의흥현에 척박한 전답이 있어 그런대로 죽 정도는 끊어 먹고 살 만합니다. 성스럽고 자애로우신 폐하께서 제가 상주에 거주할 수 있게 윤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臣有薄田在常州宜興縣, 粗給饘粥. 欲望聖慈許於常州居住)”라고 했다.

를 빌려 초연한 인생관을 피력한 것이다.

소식의 시에는 이처럼 《莊子》의 철학 사상을 수용하여 그것을 마치 자신의 말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한 예가 많은데, 이것은 소식의 시가 曠達³⁷⁾한 풍격을 형성하는 데에 커다란 작용을 했다고 생각된다.

III. 《莊子》 언어의 활용과 그에 따른 함축성 및 해학미의 제고

소식 시에는 《莊子》를 인용했으되 직접적으로 《莊子》의 철학 사상을 반영하지는 않고 《莊子》에 기록되어 있는 일화나 우언을 빌려 시적 은유로 삼거나 《莊子》의 언어를 자신의 시어로 삼은 경우도 상당히 많다.

먼저 〈왕자립의 영전에서 곡한 후 아들 태의 운에 차운한다(哭王子立, 次兒子迨韻三首)〉³⁸⁾ 其三을 보자.

- 36) 소식의 〈與王定國四十一首〉其十六(위의 책, 1522쪽)에 “근래에 상주 의흥에 작은 농지를 매입했는데 1년에 100여 섬을 수확할 수 있어 먹고 살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양주가 좋은 줄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궁지에 몰린 원숭이가 숲으로 뛰어들어 갈 때 나무를 선택해서 들어갈 겨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近在常州宜興, 買得一小莊子, 歲可得百餘碩, 似可足食. 非不知揚州之美, 窮猿投林, 不暇擇木也)”라는 말이 있다.
- 37) 많은 비평가들이 ‘曠達’을 소식 시의 주된 풍격으로 꼽는다. 일례로 袁行霈 主編의 《中國文學史(第二版)》第三卷(高等教育出版社, 2005, 60쪽)에 “深刻的人生思考使蘇軾對沉浮榮辱持有冷靜、曠達的態度, 這在蘇軾詩中有充分的體現”이라고 했다. 그리고 曹智의 〈蘇軾曠達新論〉(《文學前沿》 2007年第1期)과 〈蘇軾曠達精神再議〉(《文教資料》 2009年第15期), 李芹香의 〈論蘇軾詩詞中的曠達風格〉(貴州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王紅艷·田彩瑞의 〈淺析蘇軾詩詞的豪放曠達〉(《時代文學·下半月》 2010年第5期), 余穎의 〈曠不離世 曠而有爲 曠而智慧 — 論蘇軾其人其作的曠達〉(《樂山師範學院學報》 第26卷第9期, 2011)과 〈蘇軾曠達新論〉(《作家雜誌》 2012年第14期), 薛焯의 〈論蘇軾的曠達及其思想根源〉(《蘭臺世界》 2014年第5期), 黃幼君的 〈蘇軾與他的曠達精神〉(《黃金時代·學生族》 2016年第10期), 劉思源·桑德的 〈蘇軾 — 曠達的文豪〉(《小學時代》 2016年第36期) 등의 많은 논문에서 소식의 曠達한 성격과 詩風을 논증했다.
- 38) 《蘇軾詩集》卷31(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앞의 책, 1657쪽).

龍困嘗魚服,	용이 물고기로 변해서 곤욕을 치른 적도 있고
羊僕或虎蒙.	양이 약삭빨라서 호랑이 가죽을 쓰기도 했나니
愍愍成鬼錄,	서둘러 귀신의 명부를 만들어서
憤憤到天公.	명칭하게 하느님 앞으로 끌고 갔네.
偶落藩牆上,	어찌다가 울타리와 담장 위에 떨어졌지만
同遊羿彀中.	우리는 다 함께 羿의 사정거리 안에서 논다네.
回看十年事,	지난 십 년 동안의 일을 돌이켜 보노라니
黃葉卷秋風.	누렇게 물든 낙엽이 가을 바람에 휘감기네.

《莊子·德充符》에 “羿의 사정거리 안에서 돌아다닐 경우 한가운데는 화살이 적중하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천명이다(遊於羿之彀中, 中央者, 中地也, 然而不中者, 命也)”³⁹⁾라고 했다. 羿는 夏나라 말기의 有窮國의 임금으로 활을 아주 잘 쏘았다는 사람이다. 전설에 의하면 당시 해가 열 개 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므로 羿가 그중의 아홉 개를 활로 쏘아서 떨어뜨려 버렸을 정도로 활 솜씨가 대단했다고 한다.

이 시에서 “우리는 다 함께 羿의 사정거리 안에서 논다네(同遊羿彀中)”라고 한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비켜 갈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음을 羿의 사정거리 안에서 노는 것에 비유하여 함축적으로 은근하게 표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죽을 것이니 조금 일찍 죽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것이 없다는 의미를 담아 일찍 죽은 王子立(王適)의 혼을 위로한 것이다. 이것은 《莊子》 중의 羿에 관한 고사를 전고로 활용함으로써 함축성을 제고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비통한 마음을 해학적으로 승화시키는 효과도 가져왔다.

〈중천황과 왕원직이 미산에서 나를 만나러 전당으로 왔다가 반년 동안 머물고 떠나게 되었기에 절구 다섯 수를 지어서 전송한다(仲天旣·王元直自眉山來見余錢塘, 留半歲, 旣行, 作絕句五首送之)〉⁴⁰⁾ 其一에는 《莊子》의 大鵬 고사가 인용되어 있다.

39) 郭慶藩 撰, 王孝魚 點校, 앞의 책, 169쪽.

40) 《蘇軾詩集》 卷32(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앞의 책, 1678쪽).

仲君豈弟多學,	仲 군은 은화하고 박학다식하시며
王子清修寡言.	王 선생은 청아하고 과묵하신데
病後空驚鶴瘦,	앓고 난 뒤 학처럼 여윌에 공연히 놀라나니
時來或作鵬鷺.	때가 되면 간간이 대붕이 되어 비상하리.

《莊子·逍遙遊》에 “대붕이 남쪽의 큰 바다로 이동할 때 물을 3천 리나 쳐 올려서 회오리바람을 타고 위로 9만 리를 올라가는데 6개월을 가고 난 뒤에야 한 번 쉰다(鵬之徙於南冥也, 水擊三千里, 搏扶搖而上者九萬里, 去以六月息者也)”⁴¹⁾라고 했는데, 소식은 물을 세게 친 뒤 회오리바람을 타고 9만 리나 올라간다는 대붕에 비유함으로써 함축성 있게 仲天賦과 王元直(王箴)의 비범한 능력을 칭송하고 그들의 구만리 같은 전도를 축원한 것이다.

다음은 <도성에서 나와 진주로 올 때 내가 탄 배에 짧은 시 여덟 수가 씌어 있었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느낌을 주는 바가 있어서 잠시 화답해 본다(出都來陳, 所乘船上有題小詩八首, 不知何人, 有感於余心者, 聊爲和之)>⁴²⁾ 其二이다.

鳥樂忘罝罟,	새들은 즐거워서 그물을 잊어버렸고
魚樂忘鉤餌.	물고기는 즐거워서 낚시와 미끼를 잊어버렸네.
何必擇所安,	어찌 꼭 편안한 곳을 골라야 하리?
滔滔天下是.	넓디넓은 천하가 전부 안식처인 것을.

《莊子·胠篋》에 이런 말이 있다.

임금이 진실로 지혜로운 것만 좋아하고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질 것이다. 그렇게 될 줄을 어찌 아는가? 활과 쇠뇌, 그물과 주살, 덧과 올라미에 대한 지혜가 많아지자 새들이 하늘 위를 어지럽게 날

41) 郭慶藩 撰, 王孝魚 點校, 앞의 책, 4쪽.

42) 《蘇軾詩集》 卷6(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앞의 책, 260쪽).

아다니게 되었고, 낚시와 미끼, 그물과 전대, 투망과 통발에 대한 지혜가 많아지자 물고기들이 어지러이 물속을 헤엄쳐 다니게 되었으며, 덧과 함정과 그물에 대한 지혜가 많아지자 짐승들이 연못가를 어지러이 뛰어다니게 되었다.(上誠好知而无道, 則天下大亂矣. 何以知其然邪? 夫弓弩畢弋機變之知多, 則鳥亂於上矣; 鉤餌罟罾筍之知多, 則魚亂於水矣; 削格羅落罝罾之知多, 則獸亂於澤矣.)⁴³⁾

그물에 걸릴까 봐 걱정하면서 사는 새는 불행하다. 낚시와 미끼에 유혹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사는 물고기도 불행하다. 그물의 존재를 잊고 낚시와 미끼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새와 그 물고기야말로 복 받은 존재다. 이것이 莊子가 말하고자 한 초월적 인생관이다. 소식은 이 시의 첫 두 구절에 《莊子·胠篋》 중의 ‘罝罾(그물)’라는 어휘와 ‘鉤餌(낚시와 미끼)’라는 어휘를 인용했지만⁴⁴⁾ 여기에 《莊子》의 철학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인적 드문 강가의 하늘에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새와, 낚시꾼이 없는 강 속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다니는 물고기의 모습을 묘사했을 뿐이다. 그러나 두 글자짜리 시어 두 개가 이처럼 긴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의 함축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莊子》의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재미를 느낄 수도 있게 한다.

北宋末南宋初 사람 晁說之의 《晁氏客語》에 “동파는 해학적인 말을 좋아했다(東坡好戲謔語)”⁴⁵⁾라고 하고, 南宋 陳鵠의 《西塘集耆舊續聞》에 “동파는 익살스러웠다(東坡滑稽)”⁴⁶⁾라고 했으며, 南宋 周紫芝의 《竹坡詩話》에 “동파는 글로써 우스갯소리를 했다(東坡以文滑稽)”⁴⁷⁾라고 하고, 南

43) 郭慶藩撰, 王孝魚點校, 앞의 책, 359쪽.

44) 張三夕은 《論蘇詩中的空間感》에서 邵長蘅 刪補本 《施注蘇詩》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 《莊子》 33편 가운데 《胠篋》 한 편만 인용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주9] 참조, 이 시 중의 ‘罝罾’과 ‘鉤餌’는 소식이 함축성과 해학미라는 審美效果를 거두기 위해 의도적으로 《莊子·胠篋》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45) 晁說之, 《晁氏客語》, 《鹿門子及其他五種》, 中華書局, 1985, 30쪽.

46) 陳鵠, 《西塘集耆舊續聞》 卷3(《師友談記·曲洧舊聞·西塘集耆舊續聞》, 中華書局, 2002, 319쪽).

宋 曾敏行的 《獨醒雜志》에 “동파에게는 우아한 해학이 많다(東坡多雅諷)”⁴⁸⁾라고 하는 등 소식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증언한 바와 같이 소식은 해학을 매우 좋아했으므로 이런 시어도 해학이라는 審美效果를 위해 의도적으로 썼을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된다.⁴⁹⁾

다음은 〈햇차를 침판인 조봉랑 정 씨에게 주어 그의 모친께 드리게 했더니 시를 지어 감사하기에 차운하여 화답한다(新茶送簽判程朝奉, 以饋其母, 有詩相謝, 次韻答之)〉⁵⁰⁾의 전반부이다.

縫衣付與溧陽尉,	옷을 지어 아들에게 준 溧陽 縣尉 같은 어머니
舍肉懷歸潁谷封.	고기를 남겨 품에 안고 돌아간 潁谷 封人 같은 아들
聞道平反供一笑,	듣자하니 판결을 바로잡아 어머니를 웃게 했다던데
會須難老待千鍾.	아들의 녹봉이 천 종이 되도록 천천히 늙어야 하리.

《莊子·寓言》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曾子是 두 번 벼슬길에 나아갔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각각 달랐다. 이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적에 벼슬길에 나아갔을 때는 녹봉이 3釜(1釜는 약 한 말에 해당함)밖에 안 되었어도 마음이 즐거웠는데, 훗날 벼슬에 나아갔을 때는 녹봉이 3천 鍾(1鍾은 100말에 해당함)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살아 계시지 않아서 내 마음이 슬펐다.”(曾子再仕而心再化. 曰: “吾及親仕, 三釜而心樂; 後仕, 三千鍾而不泊, 吾心悲.”)⁵¹⁾

47) 何文煥 輯, 《歷代詩話》, 中華書局, 2004, 351쪽.

48) 曾敏行, 《獨醒雜志》 卷5(中華書局, 1985, 39쪽).

49) 和談, 《蘇軾詩話探源》, 《新疆教育學院學報》 第22卷第1期, 2006, 99쪽 참조. 和談의 조사에 의하면 顏中其가 편찬한 《蘇東坡軼事滙編》(岳麓書社, 1984)에 수록된 소식 관련 일화 가운데 그의 해학에 관한 일화가 약 100가지나 된다고 하니 이 역시 소식이 얼마나 해학을 좋아했는지를 방증해 준다.

50) 《蘇軾詩集》 卷32(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앞의 책, 1682쪽).

51) 郭慶藩 撰, 王孝魚 點校, 앞의 책, 954쪽.

이것은 曾子가 부모님과 함께하는 정신적 즐거움이 물질적 풍요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었고 莊子도 그런 관점에 동의하는 입장이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소식은 “아들의 녹봉이 천 종이 되도록 천천히 늙어야 하리(會須難老待千鍾)”라는 구절에서 이러한 莊子의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朝奉郎 程 씨(程遵彦)의 모친에게 오래오래 살아서 아들과 함께 영달을 누릴 뿐만 아니라 효성이 지극한 아들도 기쁘게 해 줄 것을 축원하는 의미로 이 고사를 활용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의 함축성을 높이고 해학미를 크게 한 것이다.

〈장난삼아 가수 수재에게 지어 준 급제동기 소 씨의 시에 화답한다(和邵同年戲贈賈收秀才三首)〉⁵²⁾ 其三의 후반부에도 이와 비슷한 예가 있다.

狙公欺病來分栗,	狙公이 속이는 버릇으로 밥을 나누니
水伯知饑爲出鱸,	水神이 절실한 줄 알고 농어를 내주네.
莫向洞庭歌楚曲,	洞庭湖를 향해 초나라 노래를 부르지 말게
烟波渺渺正愁予。	아득하게 안개 가득한 파도에 시름겨우니.

〈莊子·齊物論〉에 이런 우언이 있다. 이른바 朝三暮四 고사이다.

狙公이 도토리를 주면서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를 주마”라고 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화를 냈다. “그러면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주마”라고 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했다.(狙公賦芋, 曰: “朝三而暮四.” 衆狙皆怒. 曰: “然則朝四而暮三.” 衆狙皆悅)⁵³⁾

이 시 중의 “狙公이 속이는 버릇으로 밥을 나눈다(狙公欺病來分栗)”는 술을 오랫동안 마신 나머지 안주가 다 떨어져 가자 가난한 생활에 익숙한 賈收가 나중에 먹기 위해 안주를 조금 아껴 두려고 애쓴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상 원숭이를 기르는 狙公과는 무관하고 얼마 안 남은

52) 《蘇軾詩集》 卷8(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앞의 책, 401쪽).

53) 郭慶藩 撰, 王孝魚 點校, 앞의 책, 70쪽.

안주를 안배하느라 애쓰는 賈收를 狙公에 비유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이 고사를 연상하며 해학적인 맛을 느끼게 하는 審美效果를 내기 위해서 《莊子》의 고사를 인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갓 서늘해진 날씨를 읊은 전목보의 시에 화답한다(和穆父新涼)〉⁵⁴⁾에는 《莊子》의 고사를 세 편이나 활용했다. 다음은 이 시의 전반부이다.

家居妻兒號	집에서 지내니 부인과 자식들이 아우성쳐
出仕猿鶴怨	벼슬길에 올랐더니 원숭이와 학이 원망했네.
未能逐什一	십분의 일을 취하는 장사도 못하거늘
安敢搏九萬	어찌 감히 물을 쳐 올려 구만 리를 가겠는가?
常恐樗櫟身	늘 두려웠네 가죽나무와 상수리나무 같은 이 몸이
坐纏冠蓋蔓	의관과 수레의 덩굴에 얽히게 될까 봐.
受知如負債	인정받는 것은 빚지는 것과 다름없나니
粗報乃焚券	다소나마 보답해 보려고 문서를 불태웠네.

제4구 중의 “물을 쳐 올려 구만 리를 간다(搏九萬)”는 대방이 물을 쳐서 3천 리나 튀어 오르게 하며 회오리바람을 타고 9만 리나 올라간다는 《莊子·逍遙遊》 고사에서 ‘搏’과 ‘九萬’을 조합하여 만든 시어로, 대방처럼 대단한 포부와 재능을 펼치는 것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제5구 중의 “가죽나무와 상수리나무 같은 이 몸(樗櫟身)”은 《莊子》 두 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극도로 압축된 표현이다. 《莊子·逍遙遊》와 《莊子·人間世》에 각각 다음과 같은 말이 있는데 전자에서 ‘樗’를, 후자에서 ‘櫟’을 취한 것이다.

惠子が 莊子에게 말했다. “내게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죽 나무라고 부릅니다. 그 나무의 큰 줄기는 울퉁불퉁하여 먹줄을 치기에 적합하지 않고, 그 나무의 작은 가지는 구불구불하여 자를 대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서 있어도 목수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惠子謂

54) 《蘇軾詩集》 卷29(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앞의 책, 1521쪽).

莊子曰：“吾有大樹，人謂之樗。其大本擁腫而不中繩墨，其小枝卷曲而不中規矩。立之塗，匠者不顧。”(《莊子·逍遙遊》)⁵⁵⁾

匠石이 齊나라로 가다가 曲轅에 이르러 토지신의 사당에 서 있는 상수리나무를 보았다. 그것은 하도 커서 소수천 마리를 뒤덮고 둘레가 백 아름이나 되었다. …… 장석이 말했다. “됐다. 말하지 마라. 쓸모없는 나무라 그것으로 배를 만들면 배가 가라앉고, 그것으로 관을 만들면 빨리 썩으며, 그것으로 기물을 만들면 빨리 깨지고, 그것으로 문을 만들면 진액이 흐르며, 그것으로 기둥을 만들면 썩이 쏜다. 이것은 재목이 못 되는 나무라 쓸데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오래 살 수 있는 것이다.”(匠石之齊，至於曲轅，見櫟社樹，其大蔽數千牛，絜之百圍。……曰：“已矣。勿言之矣。散木也，以爲舟則沈，以爲棺槨則速腐，以爲器則速毀，以爲門戶則液構，以爲柱則蠹。是不材之木也，無所可用，故能若是之壽。”)(《莊子·人間世》)⁵⁶⁾

소식의 이 시는 ‘樗’와 ‘櫟’이라는 두 글자에 이처럼 많은 이야기를 압축해 넣었으니 함축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소식 시 중에는 단순히 《莊子》의 표현을 차용했을 뿐 심미효과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시를 깊이 음미해 보면 이 경우에도 역시 약간의 해학미를 더해 주는 심미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주지주 왕씨를 애도하는 만사(王鄭州挽詞)〉⁵⁷⁾에서 소식은 “어찌 알았으리 함께 있다 양식 찢을 거리 밖으로 흩어질 줄을? 애환이 있다 해도 틈바구니 지나가는 풀이었네(那知聚散春糧外，便有悲歡過隙中)”라고 했다. 이 가운데 ‘春糧’은 “백 리 길을 갈 사람은 밤새도록 양식을 찢고, 천 리 길을 갈 사람은 석 달 동안 양식을 모은다(適百里者，宿春糧；適千里者，三月聚糧)”⁵⁸⁾라고 한 《莊子·逍遙遊》의 표현을 차용한 것인데 이 시에서는 단순히 鄭州知州 왕 씨(王克臣)가 자신과 함께 있다가 정주지주로 나

55) 郭慶藩 撰，王孝魚 點校，앞의 책，39쪽.

56) 같은 책，170-171쪽.

57) 《蘇軾詩集》卷31(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앞의 책，1637쪽).

58) 郭慶藩 撰，王孝魚 點校，앞의 책，9쪽.

가는 바람에 다시 100여 리 밖으로 헤어지게 되었다는 뜻으로, 《莊子》의 철학 사상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고사 활용을 통하여 함축성을 제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莊子》의 표현을 차용함으로써 해학적인 맛이 조금 더해졌다고 할 수 있다.

〈혜주태수 첨 씨가 내 시에 화답했기에 다시 차운한다(惠守詹君見和, 復次韻)〉⁵⁹⁾ 중의 “주공근이 얻었다는 쌀을 한 창고 얻어, 莊子の 다섯 섬들이 腰舟를 채우고 싶다(欲求公瑾一困米, 試滿莊生五石樽)”에서 말한 ‘五石樽’ 역시, 앞에서 본 〈다시 차운하여 내 시에 화답한 조경황과 진이상에게 감사하고 아울러 구양숙필 형제에게도 부친다(復次韻謝趙景貺·陳履常見和, 兼簡歐陽叔弼兄弟)〉의 경우와는 달리, 세상 만물이 다 쓸모가 있다는 莊子의 사고방식과는 무관하고 단지 ‘엄청나게 큰 용기’라는 뜻으로 쓰여서 해학적인 맛을 조금 낸다.

소식의 시 중에는 이처럼 직접적으로 《莊子》의 철학 사상을 반영하지는 않고 《莊子》에 기록되어 있는 일화나 우언을 빌려 시적 은유로 삼거나 《莊子》의 언어를 자신의 시어로 삼은 예가 상당히 많은데, 이 경우 대개 시의 함축성을 제고하거나 해학미를 더해 주는 審美效果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언어는 존재의 집이요⁶⁰⁾ 의미의 그릇이라고⁶¹⁾ 할 수 있는 만큼 함축성과 해학미를 위해 《莊子》의 언어를 시어로 활용한 경우에도 역시 《莊子》의 내용과 정취가 상당 부분 그 시로 전이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59) 《蘇軾詩集》 卷38(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앞의 책, 2078쪽).

60) 마르틴 하이데거의 《숲길》(신상희 옮김, 나남, 2008, 454-455쪽)에 “언어는 구획된 영역, 다시 말해 존재의 집이다. …… 언어는 존재의 집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이 집을 통과함으로써 존재자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썸으로 가거나 숲 속을 지나갈 때, 우리는 이미 ‘썸’이라는 낱말을 통과하고, ‘숲’이라는 낱말을 통과한다”라고 했다.

61) 이형기의 《시 창작 강의》(문학사상사, 2003, 38쪽)에 “시인이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 언어를 사람들은 흔히 ‘의미의 그릇’이라고 말한다”라고 했다.

IV. 결론

清代의 詩論家 趙翼(1727~1814)에게 “東坡公은 《莊子》·《列子》 등의 諸子 및 漢·魏·晉·唐의 여러 역사에 정통하여 상황에 맞춰 번번이 전고를 인용했는데, 이는 그때그때 책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坡公熟於莊·列諸子及漢·魏·晉·唐諸史, 故隨所遇, 輒有典故以供其援引, 此非臨時檢書者所能辦也)”⁶²라는 평가를 들었을 정도로 소식은 젊을 때부터 다양한 책을 두루 읽고 이를 자신의 시문에 잘 활용했다. 그는 특히 《莊子》를 남달리 좋아했기 때문에 시를 지을 때 《莊子》를 즐겨 인용했다.

소식은 莊子の 인생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그것을 자신의 시에 자연스럽게 반영했는데, 莊子の 핵심 사상은 逍遙思想과 齊物思想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莊子는 아무런 제약도 없는 상태에서 絕對自由를 만끽해야 할 뿐만 아니라, 큰 것과 작은 것이 다르지 않고 귀한 것과 천한 것이 다르지 않으며, 영예로운 것과 치욕스러운 것이 다르지 않고 장수하는 것과 요절하는 것이 다르지 않으며, 심지어 사는 것과 죽는 것까지도 서로 다르지 않다는 지극히 달관한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는 인생철학을 견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식은 이러한 莊子の 인생철학을 시에 반영함으로써 그의 시로 하여금 曠達한 풍격을 지니게 하는 審美效果를 거두었다.

莊子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에 있어서 재미있는 우언과 의미심장한 고사를 즐겨 활용했는데 소식은 《莊子》 중의 이러한 우언이나 고사를 활용하여 시어를 구사함으로써 시의 함축성을 제고했다. 南宋 시인 姜夔(1155~1221)가 《白石道人詩說》에서 “말은 함축성을 귀하게 여긴다. 동파가 말하기를 ‘길으로 드러난 말은 끝나도 그 안에 함축된 의미는 끝이 없는 것이 천하의 지극한 말이다’라고 했다(語貴含蓄. 東坡云: ‘言有盡而意無窮者, 天下之至言也’)”⁶³라고 했거니와, 소식은 스스로 이렇게 천명했을 정

62) 趙翼 著(송용준 역해), 앞의 책, 268쪽 참조.

도로 시의 함축성을 매우 중시했기 때문에 자신이 즐겨 읽은 《莊子》의 우언이나 고사를 시의 함축성 제고에 활용한 것이다. 그리고 소식 시 중에는 때때로, 《莊子》의 인생철학을 반영하여 詩風을 曠達하게 하거나 그 속의 고사를 활용하여 시의 함축성을 제고하지 않고, 단순히 《莊子》의 표현만 차용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시를 깊이 음미해 보면 대개 자신의 시에 해학적인 맛을 더하는 審美效果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소식은 《莊子》의 사상을 수용하고 시에 반영함으로써 자신의 시가 曠達한 풍격을 띠게 하는 審美效果를 거두었고, 《莊子》의 언어를 활용한 시어를 구사함으로써 시의 함축성과 해학미를 제고하는 審美效果를 거두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 김희성, <蘇軾의 流配詩에 나타난 도가적 사유>, 《동북아문화연구》 제65집, 2020.
- 마르틴 하이데거 지음(신상희 옮김), 《숲길》, 나남, 2008.
- 蘇軾 著(柳種陸 譯註), 《정본완 역 蘇東坡詩集》(1-4),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2019.
- 蘇軾 著(조규백 譯), 《蘇東坡詩選 - 仕宦前期》, 명문당, 2016.
- 蘇軾 著(조규백 譯), 《蘇東坡詩選 - 黃州 유배와 仕宦後期》, 명문당, 2016.
- 이형기, 《시 창작 강의》, 문학사상사, 2003.
- 莊子 지음(김창환 옮김), 《莊子內篇》, 을유문화사, 2010.
- 趙翼 著(송용준 역해), 《甌北詩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63) 何文煥 輯, 앞의 책, 681쪽.

- 曹礎基,《莊子淺注》,中華書局,2007.
- 曹智,〈蘇軾曠達新論〉,《文學前沿》2007年 第1期,2007.
- 曹智,〈蘇軾曠達精神再議〉,《文教資料》2009年 第15期,2009.
- 晁說之,《晁氏客語》,《鹿門子及其他五種》,中華書局,1985.
- 陳鵠,《西塘集者舊續聞》,《師友談記·曲洧舊聞·西塘集者舊續聞》,中華書局,2002.
- 郭慶藩 撰,王孝魚 點校,《莊子集釋》,中華書局,2007.
- 和談,〈蘇軾諧謔詩探源〉,《新疆教育學院學報》第22卷 第1期,2006.
- 何文煥 輯,《歷代詩話》,中華書局,2004.
- 胡子 纂集,廖德明 校點,《苕溪漁隱叢話》,人民文學出版社,1984.
- 黃幼君,〈蘇軾與他的曠達精神〉,《黃金時代·學生族》2016年 第10期,2016.
- 簡光明,〈蘇軾《莊子祠堂記》“楚公子微服出亡”寓言試解〉,《諸子學刊》第二輯,上海古籍出版社,2009.
- 李芹香,〈論蘇軾詩詞中的曠達風格〉,貴州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2008.
- 劉乃昌,〈談東坡詩的用典〉,《東坡詩論叢》,四川人民出版社,1983.
- 劉倩、崔妍,〈《莊子》對蘇軾詩歌文學影響論〉,《安徽文學》2009年 第4期,2009.
- 劉思源、桑德,〈蘇軾 - 曠達的文豪〉,《小學時代》2016年 第36期,2016.
- 劉熙載,《藝概》,上海古籍出版社,1978.
- 陸永品,《莊子通釋》,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6.
- 蘇軾 著,孔凡禮 點校,《蘇軾文集》,中華書局,1990.
- 蘇軾 著,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蘇軾詩集》,中華書局,1987.
- 蘇轍 著,曾棗莊、馬德富 校點,《欒城集》,上海古籍出版社,1987.
- 蘇軾 撰,趙學智 校注,《東坡志林》,三秦出版社,2004.
- 王紅艷、田彩瑞,〈淺析蘇軾詩詞的豪放曠達〉,《時代文學·下半月》2010年 第5期,2010.
- 王先謙 注,《莊子集解》,上海書店,1987.
- 伍昆,〈李白蘇軾詩歌化用《莊子》人物述論〉,華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2015.
- 許嘉璐 主編, 《二十四史全譯·晉書》, 世紀出版集團·漢語大詞典出版社, 2004.
- 薛煒, 〈論蘇軾的曠達及其思想根源〉, 《蘭臺世界》 第3期, 2014.
- 顏中其, 《蘇東坡軼事滙編》, 岳麓書社, 1984.
- 葉燮, 《原詩》, 《原詩·一飄詩話·說詩碎語》, 人民文學出版社, 1985.
- 余穎, 〈曠不離世 曠而有爲 曠而智慧 — 論蘇軾其人其作的曠達〉, 《樂山師範學院學報》 第26卷 第9期, 2011.
- 余穎, 〈蘇軾曠達新論〉, 《作家雜誌》 2012年 第14期, 2012.
- 袁行霈 主編, 《中國文學史(第二版)》 第三卷, 高等教育出版社, 2005.
- 曾敏行, 《獨醒雜誌》, 中華書局, 1985.
- 張三夕, 〈論蘇詩中的空間感〉, 《文學遺產》 第2期, 1982.
- 張志烈、馬德富、周裕鏞 主編, 《蘇軾全集校注》(1-8), 河北人民出版社, 2010.
- 趙彩芬, 〈論莊子對蘇軾謫居詩主體風格的促成〉, 《雲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38卷 第4期, 2006.

< Abstract >

Su Shi(蘇軾) liked to use allusion when writing poetry and prose. He accepted the philosophy of *Zhuangzi*(莊子) and quoted a lot of words from it, because he liked the book a lot and usually enjoyed reading it. So I assumed that several studies had already been done on quotations from *Zhuangzi*(莊子) in Su Shi(蘇軾)'s poetry. However, contrary to my expectations, there were few related prior studies.

So I studied at how Su Shi(蘇軾) accepted and used the philosophy

and the words of *Zhuangzi*(莊子) when writing poetry. And through the analysis of Su Shi(蘇軾)'s poetry, I also studied specifically at how it worked on the aesthetic effects of his poetry.

As a result of this study, I found the following facts. Firstly, Su Shi(蘇軾) actively accepted the philosophy of *Zhuangzi*(莊子) and he reflected this in his poetry, and it had the aesthetic effect of giving broad-minded style to his poetry. Secondly, Su Shi(蘇軾) not only enhanced the implication of his poetry by using the words of *Zhuangzi*(莊子), but also gained the aesthetic effect of adding humorous tastes to his poetry by simply borrowing the words of *Zhuangzi*(莊子).

Key Words : 蘇軾(Su Shi), 莊子(*Zhuangzi*), 인용(quotation), 심미효과(aesthetic effect), 曠達(broad-minded), 함축성(implication), 해학미(humorous taste)